

“김홍빈 Broad Peak에 영원히 잠들다”

(브로드 피크)

원정대원들, 한술밥 먹던 알루미늄 접시로 김홍빈 추모판 만들어 K2 베이스캠프 추모탑에 헌정...이용섭 시장 “영예로운 장례” 주문

“김홍빈 Broad Peak에 영원히 잠들다.” 김홍빈 대장을 찾는 작업이 종료된 후 원정대원들이 김 대장을 추모하는 글귀를 담은 추모판을 브로드피크에 남겼다.

27일 김 대장 모교인 송원대 산악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원정대원들이 베이스캠프를 떠나기 전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글로 새긴 추모판을 ‘K2 추모탑(k2 Memorial)’에 헌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장을 브로드피크에 남겨두고 떠나지만 그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K2(8611m) 베이스 캠프에 있는 이 추모탑은 국적을 떠나 산에서 실종되거나 목숨을 잃은 세계 각국 산악인들을 애도하는 돌탑이다.

K2 추모탑에는 1999년 브로드피크 하산 때 실종됐다 최근 발견된 고 허승관(연세산악회)씨와 2001년 K2에서 하산하다 실종된 박영도씨의 추모 동판이 부착돼 있다.

추모판은 원정대가 식사 때 사용하던 직경 15cm 알루미늄 접시로 만들어졌다. 수수하지만 김 대장과 한술밥을 나눠먹던 그 접시다.

접시 뒷면을 꼭꼭 눌러 돌을새김으로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김홍빈 1964.10.7 ~ 2021. 7. 19 Broad Peak에 영원히 잠들다’라고 썼다. 김 대장이 평소 아끼던 ‘김홍빈 캐리커처’ 스티커도 붙였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대장의 장례 절차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

표하는 광주의 등반 영웅 김홍빈 대장이 편히 가시도록 영예롭게 장례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에 올라 인간 승리의 표상이 된 분”이라며 “대한산악연맹이 추진하는 체육훈장(정릉장) 추서가 잘 진행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중증장애인으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을 이뤄냈고 7대륙 최고봉 완등의 위업을 달성했다. 지난 19일 마지막 14좌인 브로드피크 등정에 성공한 뒤 하산길에 사고로 실종됐다.

한편, 지난 25일 오후 파키스탄 현지 수색대원들은 김 대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수색했지만, 눈보라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어 수색에 실패하자 실종 8일만인 26일 수색작업을 종료하고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K2 메모리얼에 붙여진 김홍빈 추모판.

/송원대 산악회 제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거리두기 3단계에도 유흥업소 중심 산발적 확산

광주·전남 연일 두자릿 수 확진 텔타변이 확산 양상 굳어지나

광주·전남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선 4일 연속 두 자릿수 감염세가 이어지는 등 신규 감염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전남지역 역시 1주일 이상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센 델타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양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 아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모두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누적 확진자는 3302명으로 늘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3명, 광주 기존 확진자 관련 4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4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2명, 서울 마포구 음식점·경기 영어학원 관련 1명, 해외유입 2명이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지난 25일 종사자의 확진 판정 이후 종사자 7명, 이용자 4명 등 모두 11명으로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현장 평가 후 접촉자 4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다. 폐쇄회로(CC) TV, 위치 정보 시스템(GPS)을 조사해 추가로 접촉자를 파악하고 출입자 관리 등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이 밖에도 마포구 음식점 등 관련 74명, 아동복지시설 관련 27명, 외국인 유학생 관련 21명, 또 다른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7명, 제주



광주 전남지역 코로나 확진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27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게스트하우스 관련 7명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23일(각각 9명) 한 자릿수로 내려갔던 하루 확진자도 24일 13명, 25일 18명, 26일 2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남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1974명이 됐다. 영암에서 해외 입국자 3명이 확진됐고 여수에서는 자가격리자 등 5명이 신규 확진됐다. 순천과 나주에서 1명씩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완도 소안도에서는 주민 전수검사를 거쳐 신규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18명이 됐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여수지역 병설 유치원

관련 확진자 4명이 자가격리 중 발생했다. 이 밖에도 대구와 대전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에서는 27일 새벽 0시 기준, 136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 발생이 1276명, 해외 입국 사례가 89명이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9만1531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57.94%에 해당하는 791명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 375명, 서울 351명, 인천 65명이다. 같은 날 광주와 전남에선 각각 23명, 1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대구에선 69명, 부산에선 66명이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김형호 기자 khh@

단 한명이라도...전남 인구늘리기 안간힘

‘전남사랑, 전남품에 주소갖기’ 운동...1100여명 이전

전남에 살면서 주소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대학생, 회사원 등 1100여명이 지난 6월말까지 전남도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늘리기에 한계를 느끼며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주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인구가 없어져 심각한 수준인 시·군들은 전입 담당관제를 실시하는 등 인구 감소세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사랑, 전남품에 주소갖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를 들어 2분기까지 도내 실거주자 1149명이 전입하는 등 인구 유출과 감소 속도에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2분기까지 찾아가는 주소 이전 서비스를 305차례 제공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주소 이전 실적은 904명이었다. 이에 따라 전입·전출에 따른 전남지역 사회적 인구 유출은 올 들어 6월까지 22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519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전남도는 올 초 주소 이전을 위해 50인 이상 고용 기업, 민간단체, 향우회 등 1200여 개소를 대

상으로 주소 이전을 독려하는 전남지사 서한문과 전남 전입 혜택 안내서를 발송했다. 또 언론을 통해 인구문제 심각성을 도민과 공유하는 캠페인도 추진했다.

곡성군에서는 ‘전입학생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생 114명이 전입했고, 장성군에서는 상무대간부대상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해 149명 유입을 이끌어냈다. 해남군에서는 인구 7만명 회복을 목표로 관내 64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실과소·읍면별 전입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시·군마다 관내 기업체,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전입인고를 접수 처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

윤영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에 직장 등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으나, 주소지가 다른 시·군인 경우가 많아 근로소득 유출 규모가 상당하다”며 “지역 경쟁력 제고와 내가 사는 지역 사랑 차원에서 실거주자로의 주소이전을 꼭 실천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19년 지역 내 총생산(GRP)을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직장인 중 4만 9000명이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윤현식 기자 chadoid@kwangju.co.kr

임야, 단독주택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승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도희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5호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공과 오시, 영구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서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전남 담양군 월산면 방암리 산27(천주교공인묘원)
- 분묘기수: 22기
- 묘지번호: 02-1431(산)**/02-3310(문**)/04-0940(김**)/04-1380(김**)/04-1730(김**)/04-1840(김**)/04-1930(김**)/04-1990(김**)/08-0330(김**)/08-1630(김**)/09-1740(김**)/09-2040(김**)/09-2310(김**)/09-2450(김**)/09-2460(김**)/09-2910(김**)/09-2950(김**)/09-3100(김**)/09-3150(김**)/09-3260(김**)/10-0000(김**)/10-0102(김**)
- 개장방법: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원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개장후 화장장
- 개장일: 2021. 7. 28.
- 개장장소: 전남 담양군 월산면 방암리 산15-(천주교공인묘원)
- 연락처: 5년
-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 공 고 인: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 신 고 처: 천주교공인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담양)062-2771210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 천주교공인묘원) 2021. 7. 28.

광주천주교공인묘원 광주지역묘지운영위원회

조직변경공고 및 최고서

본 회사는 2021년 7월 23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농업회사법인 팜스웰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 팜스웰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조직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 터 1개월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최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농업회사법인 팜스웰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808-96
대표이사 윤보현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오규석(531217-XXXXXX)
• 최후주소: 전남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3길 28-6
피상속인 망 오규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0년단1301호로 신청하여 2021년 7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 7월 28일
• 상속인: 문숙자(560930-XXXXXX)
• 상속인 주소: 문숙자(560930-XXXXXX) 병택시 송탄공영로 145, 104동 106호 (지산동, 미주아파트)
• 신고기간: 2021. 7. 28. ~ 2021. 10. 6.
• 채권신고처: 상속인 문숙자의 주소

산행안내

8월8일(일)
▲광주키산악회 8월8일(일) 경북 충북, 괴산, 문경&백두대간 대 회 010 7794 6920

야산 정상 비로봉 선유동계곡 산행, 엄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자장 06:30 * 다음카페 광주키산악회 010 7794 6920